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 1951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안동여고를 졸업하고 1971년 이화여대 사학과에 입학해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국사편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 한국미술사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반구대 보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여성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저서로는 <화안-동기창의 화문(시공사, 2003년)>, <미술인 강세황(한국문화예술진흥, 1995년)>, <장서각 소장 회화자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년)> 등이 있다.

표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 1965년 준공된 ‘사연담’으로 매년 4~7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암석은 진흙이 퇴적돼 만들어진 ‘이암(泥巖)’이라 물에 매우 취약하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각각 탐 수위 조절과 생태제방 건립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해결안을 놓고는 벌써 10년째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변 청장이 취임 후 반구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반구대의 소중함과 보존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며 이 문제는 전기를 맞고 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으나 쇠약해지고 있고 있는 반구대 모습을 보면서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애타게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께 ‘반구대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위기에 처한 외아들을 구하는 어머니의 심정이었다고 할까요.”

나는 ‘평범한’ 불자입니다
이내 변 청장의 불연(佛緣) 역시 매우 궁금해졌다. 임명 당시부터 변 청장은 불교와의 인연이 지중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 청장은 “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불자”라고 손사래를 쳤다. 불심이 돈독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업무 스케줄에 쫓기면서도 매일 아침 108배를 거르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불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특별한 전기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불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항상 사찰에 공양을 올릴 때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강원도 삼원사라는 사찰 장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오랫동안 신도

회장으로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니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변 청장의 경우 이 영향이 사유로 이어졌다. 진리의 본질이 궁금했고, 인생 본분사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소설과 철학서, 고전을 찾아 읽었지만 가장 수긍을 할 수 있던 것은 불교의 경전이었다. 부처님 초기경전 번역단체인 (사)고요한 소리에서 운문 봉사활동을 했던 것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찾고 싶어서였다. 채식은 하는 고수하는 것 역시 사회적 이유와 함께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진 한 사찰에서 법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이 도축되는 가족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이를 먹는 것은 ‘업(業)’을 심취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곡물이 생산돼야 합니다. 제3세계 빈곤국가에서는 기아로 죽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방목하는 소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까지 변 청장은 불자로서 공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야할 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다.
“저는 불자로서 아직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와 안목을 갖추기에는 멀니다. 다만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땅히 근본을 묻고, 찾고 싶습니다.”
임제 선사(의)의 ‘수처작주 임처개진(隨處作주 立處皆眞)’을 늘 품고 산다는 변영섭 문화재청장. 불자로서 문화재 전문 행정가로서 그의 ‘주인 찾기’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글=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10월 21일 황동사 연구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내빈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법일기

수행의 힘은 사람을 변화 시킨다

나를 출가로 이끈 선지식들

성철 스님 상좌로 국제포교에 헌신하다 10년 전 열반하신 원명 스님 추모집 <나는 사람이 좋더라>가 나왔다. 열반 당시 스님은 53세였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슬퍼했던 기억이 난다. 너무도 젊고도 아까운 인재이기에 다비식에서 슬피 울던 불자들이 스님들을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 하늘을 가득 채우던 슬픔들 그리고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들. 스님과의 인연은 내 나이 24세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영어와 불교를 동시에 가르치는 곳이 있다가 호기심으로 찾아간 곳 중로구 소격동 연등국제회관. 내가 찾았던 날은 묘하게도 창립 기념법회가 있던 날 점심이었다.

주신 차와 떡을 먹고 접시를 가져다 놓기 위해 부엌에 들렀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가득하다. 문득 어려서부터 절에 가면 늘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진정 복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행사마다 그 많은 설거지를 자랑스럽게 도맡아 하시곤 했다.

나 역시 어머니처럼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이런 나의 모습을 스님들은 아주 의아해 했다. 문득 찾아온 짧은 불자의 행동. 특히 영국인 무진 스님이 놀랐다. 나중에 들으니 당시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 누구도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무진 스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서툰 한국어로 안내했다. 그렇게 만난 분이 원명 스님이다.

당시 스님께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후로 인연이 되어 스님을 돕게 됐다. 얼마동안 나를 지켜보신 스님들은 출가를 권했다. 하지만 당



그림 · 박구원

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던 나는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아.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 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어느 날 무진스님과 원명스님은 나에게 해인사 5박 6일 수련회에 가라고 권유했다. 참가비도 대신 내주겠다고 희색 범복 한 별까지 미리 사줬다. 출발하는 날 원명 스님은 “가서 원택 스님을 만나라. 그리고 참가비는 의상이라고 해. 그러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해인사 주차장에 도착해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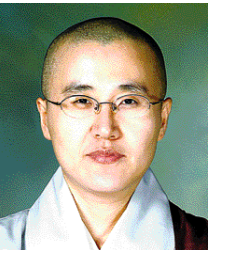
해인사에 도착하니 원택 스님이 접수를 받고 계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스님께서 참가비는 의상이래요” 했더니 “잘 알겠습니

다”며 스님 특유의 점잖음으로 답하신다.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과연 원명 스님께서 의상값을 갚으셨을까?

그렇게 수련회 3일째 되던 날, 아직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조금씩 걷히던 이른 시간.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 뜰 밖 위로 원택 스님이 보였다. 나는 합장반배로 신성한 아침에 뵙는 반가움을 표했다. 그런데 반배를 마치고 일어난 나와는 달리 스님은 여전히 반배를 하고 아직도 계신다. 민망하기도 죄송스러운 맘이 들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다.

“스님은 어찌 어린 나에게 저리도 지극하게 합장을 하십니까? 저런 여유와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런 성스러운 합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삶이라면 한번 해 볼만 하다.”

생각해보면 한사람을 출가시키기 위해 많은 선지식들이 나타나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선지식일수도 있다. 나에게 출가의 인연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가의 마음을 갖도록 마음에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 주고 공을 들여 싸움 띄워 주신 스님들의 힘은 말이 아니라 풍겨오는 수행의 힘이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수행자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내가 만난 스님들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수행자들 말이다. 원명 스님의 환한 미소가 너무도 그리운 가을이다. 내가 그때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면 인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을까?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www.shcandle.com

2014 신상품 삼환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